

인연을 짓다 (하)

황해성(군산시 지곡동)

아주머니는 수술 후 며칠 깨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난 며칠 전처럼 초조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았다. 초조한 마음이 들면 이내 주인공을 찾았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맡기고 또 맡겼다. 그러면서 틈틈이 <삶은 고기 아니다>를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갔다. 처음 읽었을 때와 달리 힘들고 고단한 스님의 삶은 내 심장을 아리게 만들어 눈물을 흘리게 했고, 당당히 걸으신 구도의 이야기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했던 내 삶을 뒤돌아보게 했다.

며칠 후 난 다시 신기한 꿈을 꾸었다. 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 속으로 의식을 잃은 채 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던 난 희미한 불빛에 눈을 뜨고 빛이 있는 쪽으로 헤엄을 쳤다. 밝은 빛속엔 부처님 한 분이 너무나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앉아 계셨다.

난 너무 신기해 ‘야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 어디까지 계시네?’ 하고 생각했다. 그때 어디선가 ‘난 해수관음이니라’ 하는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잠 시간만 꿈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꿈을 꾸는 날 기분 좋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병원을 찾아가니 부상이 경미했던 아주머니는 퇴원을 하였고, 의식이 없던 아주머니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아주씨가 아주머니에게 죽을 먹여주고 계셨다. 아주씨께서 아주머니에게 큰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 사고 낸 그 사람이야. 알겠어? 그동안 매일 당신 보러 왔었어!”

아주머니는 날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주씨는 아주머니 입에 귀를 바짝 대고 들으

시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고맙다네, 자네!” 정말 날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아주씨는 아주머니가 이제 식구들도 다 알아보시고 고비는 넘긴 것 같더라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자네도 없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아주씨 말을 듣는 순간 왈라 눈물이 쏟아졌다. 아주씨는 그런 내 손을 잡으시며 “말

들도 너무 좋았다. 법당 안에 걸려 있는 큰 스님 말씀 하나하나씩 가슴속에 들어와 감동을 주었다.

그만 오라는 아주씨의 말에도 가끔씩 찾아 빈 아주머니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차츰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니 진짜 ‘마음공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불교에 관한 책도 사보고 했지만 확실한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스님들께 가르침을 구하고도 싶었

의식 돌아왔다는 아주씨 말에 눈물 쏟아 사고 후 휴일이면 선원 찾아가 마음공부 밍고 말기는 삶 알게 해준 인연에 감사

이 힘들었을 거야. 이제 그만 오게, 마음 써 줘서 많이 고맙네”하고 말씀하셨다. 고맙다. 그리고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 짓게 되어 고맙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고 이 인연으로 인해 마음의 주인공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했다.

그 후 내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중 무휴의 3교대 근무에도 휴일이면 안양까지 선원을 찾아가다. 비록 현수경도 반야심경도 알지 못했고 예불도 드릴 줄 몰랐지만 그냥 선원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았다.

신도들을 따라 도는 탐들도, 큰 감나무 밑의 벤치도, 항상 밝게 웃으시며 활짝하며 인사할 건네시는 신도님들의 웃음 띤 얼굴

지만 신도들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쁜 신 스님들에게 선토크 용기를 내어 가르침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집 근처 절에도 가보고 인터넷의 온라인 법당이며 불교관련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법을 구해봤지만 마음만 점점 더 혼란스럽고 조금씩만 더해져 갔다.

한편으로, 혹여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져 편하고 쉬운 어떤 방법을 찾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용기를 내서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에 가르침을 구하는 글을 올렸더니 생각지도 않



그림 · 문병성

게 답변 메일을 받았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근본에서 나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 모든 것을 근본에 다진살하게 맡겨놓고 ‘당신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지극하게 밍고 말기세요.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여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근본에 다 맡겨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가스레인지들 쓸 줄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 먹고도 부족함이 없듯이 그렇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마음의 도리이니깐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다 맡기면 그만인 것을, 근본에서 나온 것 근본에 맡기면 그만인 것을 무슨 가르침이며 받을 것이며 방법을 구하려고 조바심을 내고 찾아 다녔는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모를 땀만 맺고 밍고 말길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 편해지고 땀 좀 많이 되면서부터 무엇을 바라고 이루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구하는 방법까지도 주인공에게 다 맡기면 그만인

게 답변 메일을 받았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근본에서 나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 모든 것을 근본에 다진살하게 맡겨놓고 ‘당신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지극하게 밍고 말기세요.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여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근본에 다 맡겨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가스레인지들 쓸 줄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 먹고도 부족함이 없듯이 그렇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마음의 도리이니깐요.”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자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수기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직위 해제 및 제적공고

- 승려번호 : 한불정 1999-103
- 사 암 명 : 한국불교정토종 연화사 (淵華寺)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번지 학산B/D B1
- 성 명 : 정영춘(鄭永椿)
- 법 명 : 회암(回庵)
- 직 위 : 한국불교정토종 전 총무원장

상기인을 본 종단 중헌 제 92조 4항 및 중헌·중법 시행규칙 제99조 나항의 2), 4)에 의거 2006년 10월 16일자로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본 종단에 등록한 승적을 제적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5-12 석목빌딩 701호 032)867-2694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기공요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경추: 두통, 목통증, 신경과민, 안압고, 두통, 어지러움, 이명, 청각장애, 목발, 목덜미 통증; 흉추: 심장, 폐, 간장, 좌골신경통, 허리근육 위축, 위장장애, 소화; 요추: 변비,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허리근육 위축, 생리통; 성추: 좌골신경통, 추간판 탈출, 생식기장애; 미추: 척장, 척골, 꼬리뼈의 통증

특전 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종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인명)

수련안내: ●기 간: 2006년 10월 31일부터 ●주 간 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장 소: 본 협회(충본관) ●수련비: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계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랙터, 명상 혈문어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랙터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소요법, 기주입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기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자기치료법 ●타인치료법 ●원격치료법 ●마음의 버릇 치료법 ●영성향상법 ●면역력강화법 ●동식물에 대한 기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과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